

제4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 글은 당협회가 '88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4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5,759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지난호에佳作 2편과 입선 3편을 게재하였으며 이번 호에는 입선작 2편을 소개하고, 잔여 입선작과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註)



입 선

우리 아버지는 우유배달부

대구 방촌국교
6~3 김 석 순

친구들이 하교길에 아버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아버진 대학 교수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은행 대리로 계셔.”

“아 참, 석순이 너희 아버진 무슨 일 하셔?”

“응. 우리 아버지는…….”

차마 우유 배달부라고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이 친구들에게 까지 내가 놀림감의 대상이 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있지. 석순이 아빤 젓소야. 하하하…….”

화를 낼려고 해도 낼수 없었다. 이 말은 사실이 기 때문이다. 그냥 집으로 영영 울면서 막 뛰었다.

오늘은 웬일인지 집에 아버지가 계셨다. 여느때 같으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할 것인데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퉁퉁 부운 눈을 아래로 향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겼다.

"석순아. 어디 아프니 문 좀 열어 보아라 응."

애타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만 아버지가 미웠다.

"아버지는 몰라요. 아버지는 미워. 우유 배달부 그까짓……."

정말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이런 일이 한두번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밉기만 했다.

다음날 아침도 그냥 도망치듯 나와 버렸다. 첫째 시간이 시작되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가 식생활 개선 학교이므로 식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우유의 단백질에는 몸 안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 몸 안에서의 흡수율은 98%나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유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에 들어 있는 칼슘에 비해 흡수율도 좋으며 우리들은 하루에 2컵씩 매일 마시면 건강에 딱 좋다는 말씀도 해 주셨다.

선생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반 현우가,

"선생님, 석순이 아빠는 우유 배달부라서 석순이는 매일 우유를 2컵 이상이나 먹는데요."

"아유, 석순이 좋겠구나. 몸이 튼튼한 어린이가 되겠어."

정말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이 모두 부러운 눈으로 쳐다 보는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내 머리에 스쳐 오는 것이 있었다. 바로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어릴때 부터 집안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못해본 일이 없으셔서 끼니를 굶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시니까 당연히 몸이 마르셨다. 그래서나 하나만은 더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우유 배달부를 하셨는데, 나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 드렸다니,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밤늦게 돌아오신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이젠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면서

"오냐, 우리 석순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라도 크게 외칠 수 있다.

"우리 아버지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 주는 우유 배달부입니다."

엄마

우 유

대구칠성국민학교
6~1 고정옥

"엄마 여기좀 보세요!"

"뭘 봤길래. 그렇게 호들갑이냐."

깜짝 놀라 달려 오시는 어머니께

"엄마 여기좀 보세요!"

"뭘 봤길래 그렇게 호들갑이냐."

깜짝 놀라 달려 오시는 어머니께

“엄마 나팔꽃이 피었어요.”

“나팔꽃 피는것 처음 봤니?”

이렇게 별일 아니라시며 돌아서는 어머니는 뒷 전이고 나팔꽃에만 정신이 쏠려 있었다.

내가 나팔꽃에 더욱더 정성을 들이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온지 난생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힘을 들이지 않고 나의 혼자 힘으로 키워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벌써 8시야. 빨리 학교에 가야지.”

하시는데 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차’하는 생각에 가방을 메고 빨리 달렸다.

학교에 도착 하고야 안심이 되었다.

“헉. 헉. 헉.”

“휴, 아직 지각은 아니군.”

시끌벅적한 아침 시간이 지나고 첫째 시간 시작을 알리는 종이쳤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니 저절로 스르르 눈이 감겼다.

지루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방을 던져 놓고 베란다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만해도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엄마 나팔꽃이 시들어서 죽어 가고 있어.”

얼른 달려가서 물었다.

“어떻게 해야 돼. 응? 엄마.”

“그래 정옥아. 이 우유를 부어 주어봐라.”

불쑥 내미시는 우유는 아침에 먹기 싫다고 그대로 두고간 것이었다.

“아이 엄마. 나 지금 농담하는게 아니란 말이야. 나팔꽃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옥아 이 우유를 한번 쥐 봐라. 금방 다시 살아날 거야.”

믿어지진 않았지만 나팔꽃에 부어 놓고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했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밤을 지새운 것 같았는데 벌써 아침이 되었다.

“정옥아! 정옥아!”

하는 소리가 아직 잠이 덜 깨어있던 나의 귀에 들려왔다.

“응? 왜그래.”

하며 졸린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다.

“정옥아 나팔꽃을 좀 봐라.”

깜짝 놀라 달려가 보았다.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예쁜 모습을 자랑하듯 예쁘게 피어 있는 나팔꽃이 아닌가!

정말 너무너무 기뻐다. 매일 입버릇 처럼 ‘우유 마셔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이유를 알것 같았다.

우유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구해준 은인이 되었다.

내가 먹기 싫다고 외면한 우유였는데 말이다.

얼른 부엌으로 달려갔다.

식탁위에 놓여진 우유를 손으로 들었다.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우유가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우유를 마셨다.

즐거운 마음으로…….

